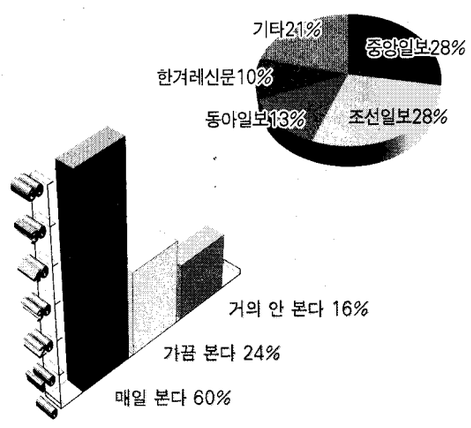
보 도

그래픽 뉴스

일간지 선호도 조사



우리신문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동안 서울, 수원 총 2백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문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그리고 어떤 신문을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매일 보는 학생이 60%, 가끔 보는 학생이 24%, 거의 안 보는 학생이 16%로 나타났다. 한편 선호하는 신문은 중앙일보 28%, 조선일보 28%, 동아일보 13%, 한겨레신문 10%, 기타(한국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스포츠 신문 등) 21% 로 나타났다.

경희, 그 한 주의 역사

1951. 5. 18 조영식 학원장 동재단을 인수하여 이사장으로 취임, 이날이 바로 개교기념일
1960. 5. 18 경희 학원가 및 응원가 제정 (작사 조영식 · 작곡 김희조)
1963. 5. 18 경희가족운동, 보다은 대학건설운동 전개
1966. 5. 18 잘살기운동 헌장 제정 공포
1967. 5. 18 잘살기운동 노래 제정 공포: (작사 조영식 · 작곡 김동진)
1971. 5. 18 학생회관, 시청각교육원 준공
1979. 5. 18 개교 30주년 기념식, 30주년 기념탑(밝은사회운동, 잘살기운동 쌍탑)제막(위 사진)
1985. 5. 17 제4회 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교내단신

'98 전국 고교생 외국어 경시대회

우리학교는 오는 5월 24일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98 전국 고교생 외국어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프랑스 · 중국 · 스페인 · 멕시코 · 러시아 대사관에서 후원하는 이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는 1, 2, 3등에게는 99학년도 우리학교 대학입시 특기자 모집(해당전공)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의 응시분야는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이다.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외국어대학(0331-201-2201)에서 받는다.

수원캠퍼스 '창업스쿨' 열어

수원캠퍼스 취업정보실은 지난 13일 우리학교 경영학과 박재용 교수를 초청, '경영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첫 취업스쿨 강의를 개최하였다.

심각한 취업난을 창업으로 극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이번 강좌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 및 일반인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생들에게 창업의 개념, 준비사항, 올바른 계획수립 등 창업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이 강좌는 수원캠퍼스 공과대학 102강의실에서 오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동안 열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정보실 (0331-201-0204/6)로 문의하면 된다.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정원	서울 캠퍼스 (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 961-0095, 961-0093~4 FAX 962-7718
주 간	최상진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 741-5701, (교환:2056 · 2860) 직통 (0331)201-2056 · 2860 FAX (0331)204-8121
편 집 장	최수정	
인 쇄 인	최영희	
인터넷 대학주보		http://news.kyunghee.ac.kr
인터넷 전자메일		zpiknews@chollian.net khunews@unitel.co.kr
구독료 / 1년 1만원		구독문의 / 961-0093~0094

발명가 특별전형 신설 14명 모집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 선발, 우수 신입생 지원 기대

99학년도에는 더욱 다양하고 재능있는 신입생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무처가 발표한 99학년도 입학전형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발명가 특별전형을 신설, 과학 특이 경력자를 선발한다.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을 보유한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실시하게 된 이 전형에서는 수상실적 50%, 논술 40%, 면접 10%를 반영, 총 14명을 선발한다.

이 전형의 지원자격은 최근 3년내 고교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각종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취득한 자나 특허청 주최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장려상 이상 입상자로 제한한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국제화 추진 전형 237명, 적성 우선 전형 70명, 학교장 추천 전형 124명, 선 · 효행자 전형 25명, 소년소녀가장 전형, 자격증 소지자 전형 등 7개 분야 특이경력자를 99학년도 신입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우리학교는 정시모집과 관련, 98학년도에 이어 99학년도에도 분할 모집을 한다.

99년 1월 4일부터 9일까지는 '가'군, 1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다'군, 1월 22일부터 27일까지인 '라'군으로 나누어 총 3개 군으로 분할 모집하게 된다. 〈강남이 기자〉

외국인 한마당 16일 개막

외국인을 위한 '98 경희 외국인 한마당이 지난 16일 막을 올렸다.

지난 16일과 오는 20일, 23일, 24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학회,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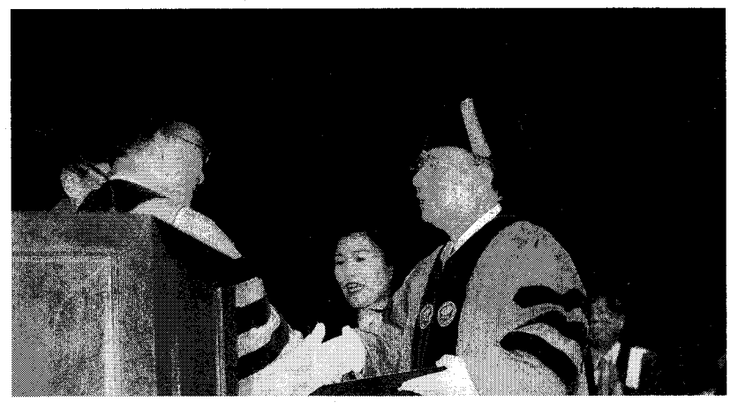
먼저 첫째날인 지난 16일 국제교육원에서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가 특강 및 질의응답, 공동 연구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날인 오는 20일 대운동장과 임간교실에서는 '경희 외국인 한마당'이 개최되어 체육대회 및 응변대회 장기자랑 경희응원단 공연이 선보이며 23일과 24일에는 국제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임간교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장기를 선보이는 한편,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 등 우리의 문화 또한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이케다씨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난민구제운동, 핵반대 운동 등 활동 인정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는 일본 창가학원의 창시자 이케다씨에 대한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조영식 학원장의 학위수여자 소개에 이어 조정원 총장의 학위 수여식 순으로 진행된 이번 수여식에는 5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식이 끝난 후 음악대학의 축하 연주도 있었다.

UN 공식 인정 평화단체 소카 가카이 국제연합(SGI)의 회장인 이케다씨는 난민구제운동, 핵무장 해제운동, 환경 및 인권 보호운동 등을 전개한 점과 미술관과 공연협회를 설립, 예술을 통한 국제교류와 이해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학위를 수여받게 되었다.

또한 이케다씨는 6권의 불교철학서, 18편의 철학논문,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토대로 한 7권의 대화록을 발간한 바 있다.

'제1회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우리학교 정보처리센터 주최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의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받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경희대 홈페이지(http://www.kyunghee.ac.kr/)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안내로 들어가 파일양식을 다운받아 보내면 된다.

제출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며 22일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법을 교육한다. 심사기간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며 작품내용, 실용성, 창의성, 기술성 등을 심사해 6월 22일 발표한다. 6월 29일 총1500만원의 상금이 수상된다. 수상 인원과 내용은 다음주에 발표된다.

사이버 시대를 대비한 대학의 정보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학내 구성원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는 실시 된다.

프록시 서버 구축으로 학내 네티즌 혼란

홍보미비와 사전준비 부족이 원인

정보처리센터의 프록시 구축으로 인해 학내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

2주전 교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 주부터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프록시 서버는 음란, 도박, 게임 사이트 등을 제한하고 자주 찾아가는 사이트를 저장하여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여준다. 그러나 제한되는 사이트 중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프록시 서버 재설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미비로 일반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희대 홈페이지 게시판 (http://www.kyunghee.ac.kr)에 "인터넷 접속이 안되길래 의아해했었는데 그것이 프록시 때문이란 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프록시 재설정 후 영어회화를 하기 위해 'Real Audio'에 접속하자 갑자기 'Error 403 음란사이트, 도박, 게임사이트는 건전한 통신을 위해 막아놓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무거나 음란, 도박, 게임입니까?"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또한 음란사이트 제한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을 차단하는 방법은 현실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내용의 글이 하이텔에 올려졌다.

학교측은 업무시간 중 원활한 네트워크 활용과 부하를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검색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시행에서 치밀한 준비기간을 두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우리가 학교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든 국내 통신을 하든 이것도 다 우리의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제대로 된 컴퓨터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정보처리센터의 프록시 서버의 류봉렬 씨는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프록시 재설정에 관련된 글을 올려 놓았고, 작년 전산망 공사 때 홍보 되었다"며 "학생들이 게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서그렇다"며 학생들의 불만에 답했다. 또한 접속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처리센터로 연락해주면 고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기동 거리 이름 공모

회기동 모범업소 선발

총학생회 산하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앞 회기동 거리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변질되어 가는 학교앞 모습을 바로잡고 건강한 회기로 탈바꿈하기 위한 회기거리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22일 거리 문화제 거리문화 운동 선포식에 맞춰 선정된 이름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회기동의 모범업소를 선발, '회기동 으뜸가게' 간판을 달아주는 행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두 행사는 인복위가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므로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완벽한 기숙사 만든다, 우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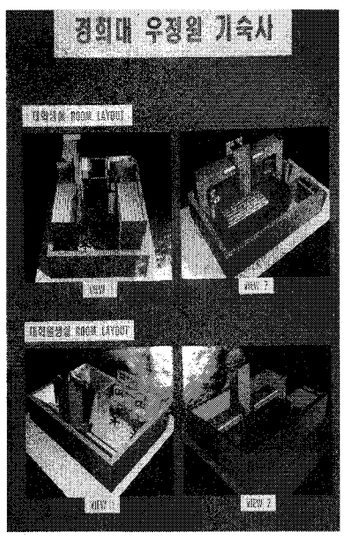
8월말 완공 예정인 수원캠퍼스 기숙사 우정원이 국내 최초로 각실마다 전용 욕실, 화장실이 완비된 오피스텔형 기숙사로 내부시설이 배치된다.

또한 1인 1대씩의 개인통신 네트워크 시설도 개설되며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우정원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하 1층은 초대형 식당인 카페테리아를 갖추게 되며 동시에 15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1층은 대학생 전용백화점이 들어서며 약 35개 전문 대형매장과 휴식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우정원의 입사 신청은 6월초에 하며 다음 학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경영 컨설턴트 MBA과정 국내 최초 신설

KMA와 공동개설, 지난 13일 조인식 가져

경영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MBA 학위와 컨설턴트 자격증을 연계한 '경영 컨설턴트 MBA 과정을 개설,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와 공동개설하게 된 이 과정을 이수할 경우, 석사학위과정 졸업자는 분야별 컨설턴트 자격증과 경영학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고, 전문가 과정은 컨설턴트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학위과정으로 전환시 이수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경영대학원 송상호 교수(961-0776)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과정은 지난 13일 교무위원실에서 실시된 조인식을 통해 확정되었다.

〈1면 대동제 기사에서 이어짐〉

행사 첫날인 19일에는 6개 단대 연합 풍물패가 솟대제와 함께 길놀이를 벌이고 오후 6시에는 대동제 개막식과 music festival이 공대 앞에서 열린다.

특히 이날 주점문화의 개선을 위한 '주점 뽑내기 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무질서하고 혼잡한 술자리가 구성원들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날인 20일은 '과 · 학부의 날'로 PC 쓰기 대회, 마당놀이 '형설지공'이 열린다.

또 이날 '무사고 365일' 행사가 치뤄질 예정인데, 이는 학내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자연대 주차장에서 학생회관까지 세발자전거를 타는 행사이다.

21일은 '단대 학생회의 날'로 외국어대는 문선단 율동, 콜라 마시기, 대동놀이 등을, 사회대는 동아리 혼성 족구와 보물찾기를, 자연과학대는 야구, 축구, 농구대회, 노래자랑, 동아리 위원회 발족식을 열 예정이며, 공대는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공대인 사진전, 록공연을 연다.

산업대는 사물놀이와 여자 팔씨름 대회, 산대 노래방, 록동아리 고려풀새의 공연을, 동아리 연합회는 퀴즈대회와 민족무예 동아리 태백의 무술시범, 손짓 사랑회의 수화공연, 비나리의 민요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마지막 날인 22일은 '총학생회와 동문회의 날'로 시상식 및 OX퀴즈대회, 뽕짝 가요제 등이 개최되고 오후 8시부터 코미디언 서승만의 사회로 가수 B.B., 인순이, 이문세 등이 출연해 공대 무대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고세희 김윤택 기자〉

〈제278회〉

캠퍼스 소식

생약반 약차 전시회 약학대학 생약반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체대앞 녹원에서 '약차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생약반은 솔잎차, 칡차, 둥글레차 등의 차를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의대 의황축전 19일부터 의과대학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캠퍼스 대운동장 및 의약관에서 의황축전을 연다. 'GO INTO MEDICAL FESTIVAL'이라는 주제의 이번 축전에서는 19일 오후 6시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3대3 농구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8시 대운동장에서는 영화제가, 20일 오후 6시 의약관 앞뜰에서는 가요제가 열린다. 이외에도 의대 동아리 MF, Hippocom, Fantastic, UP-DOWN 등의 공연 및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 학생무용 경연대회 개최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체육대학 고황극장에서 전국 초,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무용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연대회는 학생들에게 실기발표를 통한 무대경험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갖게 하고 재능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자 개최된다.

체대 · 체과대 한마음 체육대회 경희 체육 HOME COMING DAY 행사가 지난 17일 수원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서울캠퍼스 체육대학과 수원캠퍼스 체육과학대학의 공통 행사인 이번 행사에서는 재학생 · 동문을 한마음으로 만드는 행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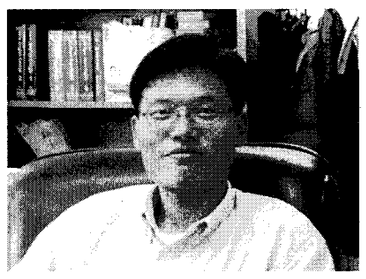
제27회 논문집 원고 모집 우리학교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제27회 논문집에 게재될 원고를 모집한다. 신청서는 각 소속대학(원)에서 배부하며 접수는 수원캠퍼스 전임교원은 수원연구산학협력처로 하면 된다. 논문집은 전임강사 이상 재직교원의 논문들로 구성되며 신청기간내 접수된 교원에 한하여 논문원고 제출요령을 별도로 통지한다.

메이크업 · 염색 무료행사 제 9대 총여학생회에서는 20, 21일 무료 메이크업 · 염색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외대앞 진달래 동산에서 진행되며 8-9명의 미용 디자이너들이 학생의 화장수정과 부분염색을 실시한다.

□ 수원캠퍼스 총예비역회장 정형기(산업공 92)

높은 지지율 바탕, 학생회 활동 큰 힘 발휘할 듯



6개월간 비어있던 총예비역실에서 사람냄새가 난다.

지난 11, 12일 양일에 걸친 선거결과 총예비역 협의회장에 정형기군이, 부협의회장에 류제만(농학91)군이 당선되었다.

"빨리 치뤄져야 했던 선거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공약을 철저히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형기군은 자신의 당선에 대해 유인물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보여주기식' 선거운동이 아니라 발로 직접 유권자가 있는 곳을 찾아다닌 홍보활동이 적중했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누구보다도 학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예비역의 여론을 적극 수렴, 총학생회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학생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70%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만큼 당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들의 부탁에 부담감보다는 동지를 얻은 듯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라는 정군에게 멋진 활동을 기대해 본다.

〈류지은 기자〉

□ 수원캠퍼스 총여학생회장 조영희(일어일문 95)

당선 후 발빠른 사업 전개 부지런함 돋보여

박빙의 표차로 당선된 총여학생회장 조영희양. 조양은 당선이 확정된 그 자리에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나머지 유권자들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양은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려 하루동안 후보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른 이에게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우천으로 인한 저조한 투표율, 총여의 존재나 역할조차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의식개혁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조양은 말한다.

"현재 취업 · 수험 · 자격증 · 여성관련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하고 있고, 여학우들의 복지 관련과제는 빠

른 시일내에 학우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발빠르게 총여를 알리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열심히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내민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경희 모든 여학우와 함께 해나가는 총여 사업을 기대한다.

〈류지은 기자〉